

뉴스시스 ■ 지방 > 경남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 농지은행사업 확대

등록 2025.03.26 10:49:20



[합천=뉴스시스]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합천=뉴스시스] 서희원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합천지사(지사장 김동원)는 올해 농지은행사업 비 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비농가, 고령, 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 하는 농가의 농지를 매입·임차하여 청년 농(청년창업농, 2030세대), 귀농인, 일반농업인에게 매도·임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세부 사업은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58억원 ▲농지규모화사업 11억원 ▲과원규모화사업 1억원 ▲경영 회생사업 13억원 ▲농지연금사업 3.7억원 ▲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1.7억원 등이 투입된다.

특히, 24년부터 시행중인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고령 농업인 영농은퇴 유도과 노후 안정을 도모하고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이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다양한 농가 계층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조건은 10년이상 계속해서 농업에 종사한 65세이상 84세이하 농업 인이 소유농지를 농지은행 또는 청

년농 등에게 매도하거나 일정기간 임대 후 매도하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금액은 농지 이양 방법에 따라 다르며, 농지를 바로 매도 할 경우 1ha당 월 50만원, 일정기간 농지를 임대한 후에 매도하는 매도 조건부 임대의 경우에는 1ha당 월 40만원을 지급한다.

김동원 지사장은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농가침체현상 해소와 젊은 후계 농업인력의 조기 정착지원을 위한 농지은행사업 확대로 농촌의 인구감소 예방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지은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포털(<http://www.fbo.or.kr>), 농지은행 대표전화(1577-7770)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를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w1881@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